



전주매일



전북 6대 핵심 현안 정부지원 요청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 국토부장관 만나 현안 설명... 우주·항공산업·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 강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북의 경제 체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핵심 SOC 현안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사업은 △우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주~무주·완주~세종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전주~김천·새만금~목포 국가계획 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등이다.

특히 이 당선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와 관련된 무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설명하며 투자선도지구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북의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전북의 경제 체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핵심 SOC 현안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우주 우주·항공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촘촘한 교통망 구

축을 통해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경쟁력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핵심 SOC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전북의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향후 관련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이 대통령과 의리 끝까지 지키겠다"

민주 정청래 대표, 당대표직 사퇴... 연임 도전 수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과 정치 인생을 돌아봤다"며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올렸으나 당 인력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뒷받침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전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1인 1표제 감사하다'이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검찰개혁 꼭 해달라'고 말씀하신다"며 "국민과 당원의 절절한 바람을 잘 알고 있고 개혁의 엔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중도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며 "개혁을 멈추면 전진 동력도 미래 동력도 멈춘다. 일신우일신,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전 대통령의 품고 계신 사저가 있는 마포구 국회의원이고,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대통령께서 정신적 지주"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광



주 5·18 민주화 운동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뜨고 지역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노무현의 키즈'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 함께 싸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다.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며 "운명공동체이자 한몸공동체로서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정 대표의 사퇴에 따라 한병도 원내 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한다.

정 대표는 지난해 대선 이후 8월에 열린 당 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약 11개월간 임기를 수행했다. /뉴스

5극 3특, 전북 대도약 여는 기회의 문

새만금·현대차 투자·금융 인프라 기반 국가 성장거점 부상
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산업성장형 특별자치도' 경쟁력 주목
국가 전략사업·공공기관 이전 등 맞춤형 지원 필요성 대두

기반 부족, 국가 투자 소외라는 3중 소외를 겪어왔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준비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전북특별법 특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지원제도 등 재생에너지·AI·로봇이 융합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여건을

갖췄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수소·로봇 분야 9조원 규모 투자 협약까지 더해지며 산업 지도를 바꿀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새만금을 지역주도 성장의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를 꾸려 범정부 지원에 나섰다. 새만금이 미래산업의 생산 거점이 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금융

과 투자의 중심축이다. 전북은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인 산업과 금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지역으로, 두 분야를 연계한 산업성장 생태계 구축에 강점을 지닌다. 특히 농생명과학 첨단산업, 금융이 아우러진 '산업성장형 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화되는 전북만의 경쟁력이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여할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 만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떠안고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실험

에 나선 지역에 그에 걸맞은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성장 잠재력을 국가 제도와 지원으로 연결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평가되지만, 관련 정책은 5극을 중심으로 구체화되는 반면 별도 행정체계와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의 성장전략과 지원 수단은 밀그림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신설된 초광역특별계정 역시 권역 중심 구조로 설계돼, 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광역특별계정 내 3특의 묶음을 명확히 하거나 별도 특별회계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전략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규제특례 사업 추

진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를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잇따른다. 국토공간 대전환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 속에서 전북을 독자적인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전북 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국비 지원 확대와 투자기업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연결될 때 전북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5극 3특은 전북이 국가 성장의 주체로 도약할 기회이지만, 3특에 대한 지원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5극 3특 정책이 전북에서 시작해 완성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